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며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육아정책개발 연구와 육아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설립 2년을 맞아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설립과정과 센터에 부여된 기능,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수행해온 연구사업과 육아정책 지원 사업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 배경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 이전에는 유아교육정책 분야의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육정책 연구는 여성개발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수행되었습니다.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정부는 보육정책개발연구를 위해 “보육개발원”을 설치할 수 있고, 2004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정부는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제1차 육아정책방안 보고회의에서 두 연구기관의 설립보다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육아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기관 통합 설립 안(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국무총리주재 제118차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 방안이 결정되고, 그 결과 3개 연구기관의 양해각서 체결에 의하여, 공동 부설기관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가 2005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정책 연구 사업과 정책사업 지원업무 등, 모든 업무는 3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기능

법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탄생한 육아정책개발센터에 대하여 정부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음의 7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 1) 육아정책방안 연구
- 2) 육아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교재개발
- 3) 육아지원기관 평가 및 자문
- 4) 육아지원인력 자격제도관리 및 교육
- 5) 주요 육아정책사업 지원 연구

6) 국내외 육아정책 정보자료의 공유 및 관리

7) 육아정책관련 국제협동연구 및 교류협력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이러한 기능을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어느 정도 잘 수행해 왔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육아정책 지원사업의 수행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을 수탁 받아 평가인증사무국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평가시스템 개발연구와 시범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치원 평가시스템 운영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아동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도 정부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했고, 그 프로그램의 보급도 맡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국가자격 부여 업무도 수탁 받아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운영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개발 연구 뿐 아니라 이처럼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실제 정책 사업을 실시간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중요한 육아정책사업의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 연구과제 수행

이제 설립 2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연구진 규모를 감안할 때, 실로 상당한 양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내었다고 자부합니다. 2006년 초, 겨우 5명의 연구진으로 시작한 연구들이 이제는 보육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18명의 연구진에 의하여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수시연구와 주요 data 생산 과제를 포함하여 40여 개의 중대형 연구과제들을 이미 마쳤습니다.

정책 연구가 진행될수록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수행해야 할 연구영역과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빠른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육아재정의 확대와 육아지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면서 어떤 정책이 육아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의 제고, 적정비용 부담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절실하고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정책방안이 육아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여성경제활동 지원, 그리고 출산율 제고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 데이터 축적과 치밀한 연구 설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2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이 정책수요자들과 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 개발을 위해 data bank와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